

非 唯物的 哲學觀(四)

裴 相 河

그렇지만은 吾人은 形而上學的 要求의 對象인 『보히지 않는 것』 自體의 存在如何에 對하여는 肯否를 決定할 수 업는 것이니 『칸트』의 二律背反에 쫓쳐서 있다고 해도 그만이고 업다고 해도 그만이다만은 客인 對象과 主人 思惟를 全然 同一視할 수는 업는 것이니 設或 對象의 存在與否가 疑心난다 할지라도 그 對象을 차즈려는 主의 心的 活動, 心的 要求의 存在만은 絶對로 否認치 못할 것이다. 이와 가튼 例를 들면 A가 B를 사랑할 旣에 B도 亦是 A를 사랑할 것 가트면 아모런 問題업시 圓滿히 解決될 것은 勿論이지만 設 令 B가 A를 사랑치 안는다 할지라도 B에게 對한 A혼자의 사랑의 存在만은 否認할 수 업는 것과 마찬가지로. 勿論 認識의 主와 彼 認識의 客이(相合을 할 旣에 비로소 完全한 學的 認識이 生겨야 하겠지만은 元體 形而上學은 學的으로 拒絕을 當하고 잇는 이 旣이니 吾人은 區區히 『보히지 않는 것』의 根據를 認識論的 學的 完全에 빌려고 하지는 안는 것이다. 다만 우리의 否認하라야 否認할 수 업는 『사람』의 心的 欲求에 根據를 두고 있다고 말할 旣름이다. 그러므로 形而上學은 非科學的 學問이로되 形而上學的 要求만은 아모런 科學者도 否認치 못한 絶對의 心的 存在이다. 그리하여 이 形而上學的 要求를 滿足시키려는 貴여운 努力을 우리는 『플라톤』의 Idea에서 『아리스토텔레스』의 Etelecheia에서 『칸트』·『췌테』·『셸링』·『헤-겔』, 近世의 『닛치에』·『베르손』에서 엿볼 수 있다. 비단 個個의 몇몇 헤아릴 수 잇는 哲學家에서 畚만이 아니라 紀元 前 四五世紀부터 現代에 니르기까지의 모든 形而上學的 體系에서 이러한 努力을 차저내일 수 잇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 어느 時代를 勿論하고 (科學萬能인 二十世紀서라도) 非科學的이라는 賤名을 버더 가면서라도 오히려 矚임 업시 닐어나고 잇는 形而上學的 存在로서 말미암아 불지라도 形而上學的 要求란것 다시 말하면 現象 등 뒤에 숨어 잇는 (보히지 안트라도 보히어서야 하겠는 것)을 차즈려는 欲求가 얼마나 썩리깊히 우리들 가슴속에 잠겨잇는 가를 알 것이다. 以上の 論述에서 生겨날 必然의 結論을

매즈면 (보히지 안는)것을 통해서 불진대 外的 客觀的 物的 存在의 存在如何는 甚히 疑心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形而上學的 要求 卽 內的 主觀的 心的 活動의 存在만은 어느 누구든지가 否定할 수 업는 自明의 것이라할 수 맞게 업다. 『보히지 안는 것』을 찾는 欲求야말로 純全한 觀念的 心的 活動이니 여기서 吾人은 非唯物的인 것의 둘째로 『보히지 안는 것』을 찾는 마음 卽 形而上學的 要求를 드는 바이다.

四. 괴로운 것

[宗教, 人生觀]

『괴로운 것』이란 看板을 區區히 부치는 것이 돌리어 철 업는 짓 갖기도 하다. 『人生은 괴롭다는 말 가티 쓸데업는 말은 업다』는 넛말처럼 世上이 괴롭다는 事實은 平凡化해 버릴대로 平凡化해 버린 眞理이다. 그리고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種類로 난후어질 것이니 失戀의 괴롭 □□의 괴롭 病老의 괴롭 等 여러 가지 種類가 잇슬 것이며 또 그 程度에 잇서서도 베룩한데 물린 것 가튼 조고만 괴롭 눈이 坎坎하고 精神이 아득하여 지는 至毒한 괴롭 等 그 사이에 程度의 千差萬別이 잇슬 것이다. 만은 程度의 如何는 姑捨하고 種類를 通하여 보면 物的 苦痛과 心的 苦痛으로 二 大別될 것이니 物的 苦痛의 原因은 外的 物的에 잇고 後者의 原因은 內的 心的에 잇다. 物的 苦痛은 後天的 卽 世上에 나온 뒤에 物的 窮乏을 甞기든지 또는 다른 物的 影響의 不吉한 方面을 맞볼 새 비로서 生겨나는 苦痛이로되 心的 苦痛은 先天的이며 決定的이며 宿命的인 苦痛이다. 『東을 보나 西를 보나 하늘을 울어러 본들 영을 굽흐려 본들 도모지 依支할 곳 업고 미들 곳이 업고 하소연할 곳이 업다』는 寂寞한 괴로운 甞김을 甞길 새가 잇슬 것이니 이러한 아모런 原因도 알 수 업시 自然히 心的 內部에서 일어나는 孤寂感이야말로 大王이나 乞人이나 다 가티 宿命的으로 타고난 人生苦의 甞김이다. 다시 말하면 物的 苦痛은 物을 所有한 分量如何 또는 物的 影響의 多少如何에 淸하서 個個人의 괴롭의 程度에도 差異가 잇겟지만은 心的 苦痛 卽 宿命의 人生苦의 感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가티 논히어 잇는 것이다.